

4월 27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앞으로 한달 - 각 정당 설악권 선대위원장에게 듣는다

“강원도 정상궤도에...12년 독주 바로 잡아야”

“강원도는 중앙정부와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더욱 효과적”



한나라당 정문헌 선대위원장



민주당 이동기 지역위원장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위기와 빚더미에 쌓여 있는 강원도를 행복한 강원도로 만들어야”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속초-고성-양양 지역에서도 각 정당별 선거대책 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문헌 전 국회의원을 속초-고성-양양지역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역내 한나라당 지지층 결집을 통해 지난 선거에서 내준 한나라당 도지사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이광재 전 지사의 선거대책본부 영동권본부장을 맡았던 이동기 속초-고성-양양지역 위원장이 3월 31일 후보자 공천 완료와 함께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한

각 정당의 해석은 사뭇 다르다. 한나라당은 도정 공백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던 강원도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희생을 당한 이광재 전 지사를 강원도민의 힘으로 되찾아 온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 정문헌 선대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는 도지사 공백 등으로 주춤했던 강원도를 정상 발전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퇴행을 다시 반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동기 지역위원장은 “정치적 희생을 당한 이광재 전 지사를 다시 한번 강원도민의 힘

으로 되찾아오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파탄과 강원도정 12년 독주로 인한 도정파탄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해석했다.

각 정당이 도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논리도 서로 다르다. 한나라당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므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제격이라는 논리이며, 민주당은 도민들의 선택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데 대한 심판과 12년 한나라당 도정이 만든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나라당 정문헌 선대위원장은 “강원도는 중앙정부와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인물론으로 따져도 강원도를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만들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동기 지역위원장은 “150만 강원도민의 민주적 선택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데 대해 도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이광재 전 지사를 제자리로 되찾아 올 것”이라며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위기와 빚더미에 쌓여 있는 강원도를 행복한 강원도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

도지사가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각 정당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순경 도지사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고, 이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4월 3일까지 경선 선거운동을 실시한 뒤 4월 4일 평창군 용평동에서 국민선거인단 대회를 통해 도지사 후보를 최종 결정하고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지층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3월 28~30일까지 도민참여경선 방식을 통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뒤 31일 도지사 후보를 최종 결정한 뒤 4월부터 후보자 선출대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음식쓰레기 전용수거 시범사업 실시

6월부터 간성읍 시내권 주택 대상 ... 시연회 열려

고성군이 오는 6월부터 간성읍 시내권의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전용 수거기에 대한 시연회를 가졌다.

집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용 3ℓ 전용수거용기에 담고 수수료 칩을 구매해 고정식 배출용기에 칩을 삽입해 문을 열어 배출용기를 지정선 안까지 넣은 후 배출용 폐달을 밟아 용기에 담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군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기 시범사업을 통해 악취발생과 동물에 의한 시가지 환경오염 등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게 된다.



지난 22일 군청 본관 입구에서 열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시연회 장면.

이날 시연회는 오전 10시 간성시범지역(상리, 하리, 신안리) 이장과 반장, 간성읍사무소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농협 파머스마켓 주차장에서 열렸다.

이어 오전 11시 군청직원과 고성군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군

청 본관 입구에서 가정용 3ℓ 전용수거용기 및 고정식 밀폐설비, 선불 수수료 칩 등에 관한 안내를 실시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기 사업은 오는 6월부터 간성읍 시내권 단독주택 약 820가구 및 일반주택(중전 120ℓ 용기 사용 공동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현안사업 점검·대책 강구

2011년 주요사업·현안 추진상황 보고회

고성군이 새봄을 맞아 구제역과 대설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당면 현안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상황실에서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읍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주요사업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조기발주 진행사항과 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규명하고, 사업의 조기추진과 빠른 생활안정 정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억원이상 사업 및 2천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 점검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월 및 계속비사업과 읍면의 5백만원 이상 사업 등도 점검했다.

특히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업무협약, 고성소방서 신축사업, 일자리창출 종합추진대책, 명태 가공산업 육성, 동해고속도로 조기착수,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등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을 점검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군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 행정 누수 예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군정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최광호 기자

읽고난 고성신문은 이웃과 함께 보세요